4강. 매화에 물 주어라

- 퇴계 이황 (1501-1570)의 사상과 매화 사랑 -

김 교 빈 (호서대학교)

1. 사화 속에 핀 삶

*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에서 진성이씨 집안 8형제 가운데 막내로 출생
* 홀어머니의 엄한 교육
* 27세부터 과거시험 - 33세 대과 합격
* 사간원, 사헌부, 성균관 대사성,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, 예조판서, 이조판서
* 48세 풍기와 단양 군수 - 무단 사직 - 두 계급 강등
* 토계를 퇴계로

  몸이 물러서니 내 분수에 편안하고
  학문이 뒤늦었으니 늙어감이 걱정일세
  시냇가 언덕 위에 머물 곳을 정해 놓고
  흐르는 물가에서 날마다 반성해 보네

* 도산서원 건립 - 이 무렵 기대승과 4단7정 논쟁, 『성학십도』
* 생애가 4대사화와 연관 - 사림파를 옹호하는 철학

2. 퇴계의 매화 사랑

* 선비들의 벗 - 매화, 난초, 국화, 대나무
  소나무와 잣나무
  폭포
  괴석

* 나의 벗은 다섯이니 솔·국화·매화·대·연꽃
  서로 사귀는 정이 담담하여 싫지 않네
  그 중에 이 매화가 특히 나를 좋아하여

* 매화시 107수
* 매화보기 부끄럽다
* 매화에 물 줘라

* 매형, 매군 – 사람처럼 호칭
* 신선에 비유

* 450년의 사랑

[季春至陶山 山梅贈答 늦봄에 도산에 이르러 매화와 주고받다]

寵榮聲利豈君宜 부귀와 명리가 어찌 그대와 어울리랴
白首趨塵隔歲思 풍진 쫓던 흰 머리 지난 세월 생각나네
此日幸蒙天許退 지금은 다행히도 낙향 윤허 받았으니
況來當我發春時 하물며 내가 옴에 꽃 필 봄 아니던가

〈기사년 봄 한성 우사에 있으면서 분매를 얻어 늘 책상에 놓고 보았는데 장차 떠남에 시로 작별하다〉〔己巳春 在漢城寓舍 得盆梅 常對案上 將行贈別〕

頓有梅仙伴我凉 매선이 계셔서 내 쓸쓸함 짝해주니
客牕瀟灑夢魂香 소쇄한 객창에 꿈속 혼마저 향기롭다네
東行恨未携君去 동으로 감에 그대 못 데려가 한스러우니
京洛塵中好艶藏 서울 티끌 속 아름다움 고이 간직하시게

〈매화가 답하다〉〔梅花答〕

聞說陶仙我輩凉 도선의 말 들으니 우리도 쓸쓸하다오
待公歸去落天香 그대 돌아감 기다려 천향도 다하리
願公相待相思處 원컨대 그대 서로 기다리고 그리워할 때
玉雪淸眞共善藏 옥설과 청진을 함께 잘 간직해 주오

3. 소인과 군자는 뒤섞을 수 없다 – 4단7정논쟁

* 4단과 7정이 무엇을 근거로 나오는 것이며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따진 것
* 4단 – 맹자 7정 – 『예기』와 『중용』
* 성리학의 성과 정은 일원적

* 『중용』: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
* 논쟁 시작 : 53세 정지운의 「천명도설」
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 -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
* 6년 뒤 33세 기대승과 59세 이황이 토론 시작
* 1959년부터 1966년까지 햇수로 8년 : 9편 정도의 편지
* 이황이 편지 : 四端之發 順理故無不善 七情之發 兼氣故有善惡

* 기대승의 주장
1) 만물 항상 리와 기가 함께 있음 - 4,7로 나눌 수 없음
2) 4,7 모두 감정 - 순한 것이 4단 - 七情包四端
3)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뿐이고 리는 불변

* 이황 : 4단과 7정이 모두 감정임을 인정
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乘之
* 하지만 서로 가리키는 바가 다르므로 나누어야 함

* 퇴계 : 사람과 말 비유
* 고봉 : 달의 비유
* 4단 가운데에도 원래 빛은 밝지만 물결 때문에 알맞게
드러나지 못하는 경우
7정 가운데에도 그 결과가 알맞게 드러난 것이 있음

* 4단7정과 군자 소인.
* 결론 못 내림
* 사화기 숨진 사림파를 설명하는 논리

4. 理 중심의 철학

* 세상을 움직이는 바른 힘은 도덕 뿐
* 시대 바뀌어도 불변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제시
* 理字難知
* 리는 모든 존재의 존재 원리인 동시에 도덕 원리
* 理爲氣之帥 氣爲理之卒
* 理貴氣賤

* 유학 - 인본주의 : 신이나 내세에 대한 관심 없음

* 내가 있는 자리가 중심
* 인간의 중심은 깨어 있는 마음
* 마음 지키는 요점은 敬

5. 敬의 철학

* '경이란 한 마음의 주재자이고 모든 일의 근본'
* 마음이 움직이기 전이나 움직였을 때나 항상 경 유지

* 유학은 종교 아님 : 인과응보나 내세관념 없음
  : 수치심이 스스로를 벌할 뿐
*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과정이 마음 속에 경건함을 보존 유지하는 일

6. 퇴계철학의 영향

* 일본유학의 원조가 된 퇴계철학
* 강항 – 에도유학 시조 후지와라 세이카 가르침
* 영남학파 – 조목, 정구, 김성일, 유성룡 등 – 조목은 이황이 죽은 뒤 3년 상 지냄
* 양계초도 이황을 찬양하는 시
* 명치유신 직후 교육헌장의 사상적 바탕 – 일본 기업윤리의 근간